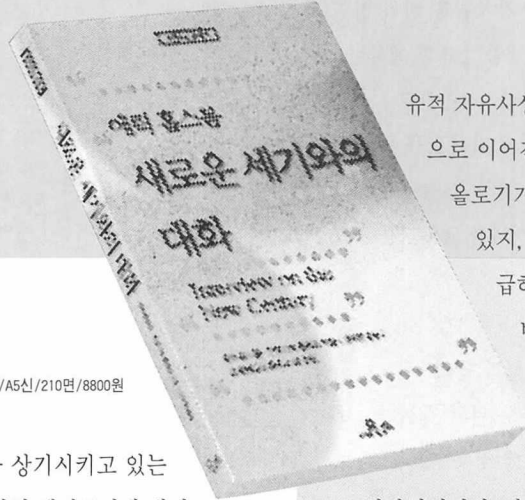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한 역사학자의 21세기 진단서

에릭 홉스봄 외의 《새로운 세기와의 대화》

홉스봄은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역사학자의 임무라고 주장한다. 홉스봄의 21세기 전망은 일반적인 미래학자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 성장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오늘의 인류에게 홉스봄의 전망은 경청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클리오/A5신/210면/8800원

역사학자는 미래예측에 대해 극히 소극적이다. 역사에는, 그것이 과거형이든 미래형이든, '가정법'이 없다는 통념이 뿌리깊게 자리잡은 데다, 미래예측은 점성술사나 예언가들이 하는 일이라 여겨온 탓이다. 하지만 "미래를 일정한 범위내에서 예측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그런 예측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역사학자가 있다. 《극단의 시대》 등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탈리아의 저널리스트 안토니오 폴리토는 홉스봄의 지론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하다. 21세기를 전망하는 자리에 이 노(老)학자를 초청한 것이다. 《새로운 세기와의 대화》(강주현 옮김, 클리오)는 폴리토와 홉스봄의 대화를 기록한 책으로, 새로운 세기의 미래를 장밋빛으로만 그리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인류의 현안과제로 분배문제 제시해

홉스봄은 '팍스 아메리카'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21세기를 전망한다. 지난 세기가 아메리카의 시대였던 이유를 홉스봄은 미국 경제의 규모와 역동성, 그리고 문화적 헤게모니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홉스봄은 일반적인 예측과 달리, 미국의 시대가 오래 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 근거로 홉스봄이 들고 있는 것은 영국의 예다. 한때 잘나가던 영국이 세계경찰역을 스스로 포기

했던 사실(史實)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지금 미국문화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건일 뿐 '영원히 불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홉스봄은 이 책의 서두에서 역사가 영원불변한 구조라고 믿고 있는 아날학파를 비판하면서, 자신이 역사에는 인간사회의 변천사라 할 만한 구조와 패턴이 있다고 믿는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지배할 집단은 누구인가? 이에 대해 홉스봄은 단호하게 대답한다. "다음 세기는 누구의 세기도 아닐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세계가 하나의 나라에 지배되기에는 너무 넓어지고 복잡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홉스봄은 '세계화'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물론 경제분야의 성과는 인정한다. 세계화가 '케이크'를 키운 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홉스봄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1960년대 이후 '붕기'를 위해 일어난 '굶주린' 사람들이 실제로 굶주리는 경우는 없다"며, 인터넷서 날가의 노랫말을 패러디한다. 하지만, 세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미래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홉스봄은 세계화의 결실이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여기에서 홉스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신자

유적 자유사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 이어진다. 홉스봄은 이 이데올로기가 '성장'만 이야기하고 있지, '분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통렬하게 비난한다. 홉스봄은 그 구체적 실례로 완전한 자유시장이 영화산업을 획기적으로

성장시켰지만, 거의 모든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성장의 대가가 독점되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다.

홉스봄이 새로운 세기에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내세운 것은 역시 '분배문제'다. 이 부분에서 홉스봄이 강조하는 것은 평등정신이다. '자유·평등·박애'라는 프랑스 대혁명의 3대구호 가운데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정신은 평등이라는 것이다. 홉스봄이 말한 평등이란 "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회봉사와 재분배"를 뜻한다.

인간적 가치의 중요성 역설

인류는 지금 빛의 속도로 달리는 '육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있다. 이 아찔한 속도전에 인류가 닿을 종착역이 어디인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그냥 곧 다가올 태평성대를 '가뭄'해 오늘을 즐기라는 '안내방송'만 나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홉스봄은 "인류를 위한 유일한 이상이 물질적 풍요를 통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인류는 언젠가 멸종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홉스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이권우 기자